

## 예수님 족보(마1 : 1-17)의 구조적 특징

黃 昌 起  
(부교수·신약학)

### 1. 서 론

예수님 족보는 신약 성경의 제일 첫째 책인 마태복음의 첫 부분에 실려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에 처음 들어와 성경을 대할 때 맨 먼저 대하는 부분이 바로 이 족보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처음부터 이런 종류의 글이 신약성경 맨 앞에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만, 우선 많은 낯선 이름이 등장하는데, '……낳고' '……낳고' 式의 문장 형식이 계속 반복되어 싫증을 느끼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개 자기 가문을 중시하고, 족보에 어느 정도 예비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따라서 본문과 같은 예수님의 족보도 그러한 족보와 비슷한 것으로 여기기에 알맞는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과연 예수님의 족보는 어떤 의미를 지녔을까? 그야말로 조상의 뿌리를 밝히는 일종의 연대표(chronology)일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성경에 무엇 때문에 이 족보가 포함되었을까? 그리고 왜 맨 앞에 나왔을까? 이 족보는 하나님의 무슨 계시를 밝히고 있을까?

이상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하여 우선 마태복음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대로, 그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자. 그리고 구약의 역사적 맥락에서 이를 해석해 보자.

설 명	절	본 문
주 제	1a	Βίβλος γενέσ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υἱοῦ Δαυὶδ υἱοῦ Ἀβραάμ.
이스라엘 왕국의 형성기 (왕조이전)	2a	Ἀβραάμ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Ἰσαάκ,
	b	Ἰσαάκ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Ἰακώβ,
	c	Ἰακώβ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Ἰούδαν καὶ τοὺς ἀδελφοὺς αὐτοῦ,
	3a	Ἰούδας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Φάρες καὶ τὸν Ζάρα ἐκ τῆς Θαμάρ,
	b	Φάρες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Ἐσρῶμ,
	c	Ἐσρῶμ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Ἀράμ,
	4a	Ἀράμ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Ἀμιναδάβ,
	b	Ἀμιναδάβ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Ναασσών,
	c	Ναασσών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Σαλμών,
	5a	Σαλμών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Βόες ἐκ τῆς Ῥαχάβ,
	b	Βόες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Ἰωβῆδ ἐκ τῆς Ῥούθ,
c	Ἰωβῆδ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Ἰεσσαί,	
6a	Ἰεσσαί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Δαυὶδ τὸν βασιλέα.	
이스라엘 왕국의 흥망기 (왕조시대)	b	Δαυὶδ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Σολομῶνα ἐκ τῆς τοῦ Οὐρίου,
	7a	Σολομών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Ῥοβοάμ,
	b	Ῥοβοάμ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Ἀβιά,
	c	Ἀβιά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Ἀσάφ,
	8a	Ἀσάφ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Ἰωσαφάτ,
	b	Ἰωσαφάτ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Ἰωράμ,
	c	Ἰωράμ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Ὀζιαν,
	9a	Ὀζίας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Ἰωاثάμ,
	b	Ἰωاثάμ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Ἀχάζ,
	c	Ἀχάζ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Ἐζεκιαν,
	10a	Ἐζεκιᾶς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Μανασσῆ,
b	Μανασσῆς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Ἀμώς,	
c	Ἀμώς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Ἰωσίαν,	
11a	Ἰωσίας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Ἰεχονίαν καὶ τοὺς ἀδελφοὺς αὐτοῦ ἐπὶ τῆς μετοικεσίας Βαβυλώνος.	
새이스라엘 왕국의 여명기 (왕조이후)	12a	Μετὰ δὲ τὴν μετοικεσίαν Βαβυλώνος Ἰεχονίας ἐγέννησεν τὸν Σαλαθιήλ,
	b	Σαλαθιήλ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Ζοροβαβέλ,
	13a	Ζοροβαβέλ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Ἀβιουδ,
	b	Ἀβιουδ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Ἐλιακίμ,
	c	Ἐλιακίμ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Ἀζώρ,
	14a	Ἀζώρ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Σαδώκ,
	b	Σαδώκ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Ἀχίμ,
	c	Ἀχίμ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Ἐλιούδ,
	15a	Ἐλιούδ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Ἐλεάζαρ,
	b	Ἐλεάζαρ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Μαθθάν,
	c	Μαθθάν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Ἰακώβ,
16a	Ἰακώβ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Ἰωσήφ τὸν ἄνδρα Μαρίας,	
b	ἐξ ἧς ἐγεννήθη Ἰησοῦς ὁ λεγόμενος Χριστός.	
요 약 (14×3)	17a	Πᾶσαι οὖν αἱ γενεαὶ ἀπὸ Ἀβραάμ ἕως Δαυὶδ γενεαὶ δεκατέσσαρες,
b	καὶ ἀπὸ Δαυὶδ ἕως τῆς μετοικεσίας Βαβυλώνος γενεαὶ δεκατέσσαρες,	
c	καὶ ἀπὸ τῆς μετοικεσίας Βαβυλώνος ἕως τοῦ Χριστοῦ γενεαὶ δεκατέσσαρες.	

### 2. 사고구조 분석

필자는 사고구조 분석법에 대하여 이근삼박사 회갑 논문집(1984 : 371-427)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밝혔듯이(황창기, 1985;1987 : 173-186) 이것은 구조주의(Structualism) 성경 해석법과는 그 출발이나 기본 전제 및 방법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다.

사고구조 분석법은

- (1) 본문을 번개함이 없이 기본 배열대로 따르되
- (2) 한 단위에 한 동사만 들어가도록 하여, 각 문장 또는 절을 본문의 순서대로 나열하여
- (3) 동일하거나 대조되는 점 등 여러가지 특징들을 한 눈에 들어오도록 하는 시각적 효과를 위한 각종 표시를 곁들여서 도표화 하고
- (4) 여러가지 문체적 특징과 함께 일단 전체의 흐름을 따라 저자기 의도하는 바를 포착하는 본문 분석법이다.

그 장점은 다음과 같다.

- (1) 본문을 석의(exegesis) 하는 자에게 그 시작 및 방향을 제시한다. 따라서 이 구조를 분석하면서 석의함으로, 엉뚱한 길로 깊이 빠져 그 방향조차 모호하게 되든지, 균형을 잃을 위험을 덜어준다.
- (2) 본문의 배열을 따르므로 석의자 즉, 주석자의 선입견을 배제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석의자에게 종종 있을 수 있는 유혹은 자기의 신학 및 어떤 전제를 가지고 본문을 읽는 것인데, 이 분석법을 따르면, 이와 같이 색안경을 끼고 본문을 대하거나, 또 미리 어떤 결론을 가지고 본문에 들어가는 것을 아마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처방일 것이다.
- (3) 이 분석법은 헬라이어 본문을 철저히 분석하는 일부부터 시작함으로 모든 것을 원문에서 시작하는 중에 상당한 예견과 통찰을 얻어, 평소에 볼 수 없고, 간과하지 못했던 점들을 쉽게 포착할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본문에 나오는 단어 하나 하나를 세밀히 관찰하는 것부터, 문단 전체 구조까지 살펴서, 작자의 사상을 하나로 집약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나무 하나 하나를 살피면서, 숲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어, 그 핵심 포착에 매우 유익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본문 1절~17절은 마태복음 1장에서 18절~25절과는 구분된다. 즉 전자는 예수님의 계보를 보여주는 반면에 후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의 주제는 βιβλος γενεσ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1a)이고, 후자는 γενεσι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사본상의 문제(8a, 10c, 11a, 16b)도 별로 문제시 될 것이 없다. 그래서 UBS 본문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우리는 마1 : 1-7절까지를 한 문단(pericope)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이를 사고구조 분석을 위해 앞의 도표와 같이 배열하였다. 즉 한 기본 단위를 한 동사를 중심으로 구분 배열하

였다. 본 문단에서는 1절과 17절을 제외하고 모두가 *ἐγεννησεν*을 써서 같은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고구조 분석표는 colon 구조분석 또는 강화분석(discourse analysis : 참조, 황창기, 1984 : 374~393)과 차이점이 없게 되었다. 즉 본문단의 구조는 가장 단순한 것이기 때문이다.

### 3. 본 문단의 구조적 특이점

본 문단은 X *ἐγεννησεν* Y의 형식을 그 골격 내지 기본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기본 형식을 확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즉 2c, 3a, 5a, 5b, 6a, 6b, 11a, 12a, 16a, 16b가 바로 확대된 기본형식을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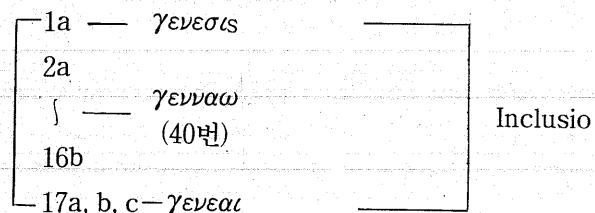
이제 구조적 특이점을 살펴보자.

3.1. 본문단은 크게 5대 구획을 나눌 수 있다.

- ① 1a : 제목 및 주제
- ② 2a-6a : 아브라함~다윗왕(왕조이전)
- ③ 6b-11a : 다윗왕~바벨론 이거(왕조시대)
- ④ 12a-16a : 바벨론이거~그리스도(왕조이후)
- ⑤ 17a-17c : 결론 및 요약

이상의 구분은 본문을 잘 살펴보면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즉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열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구획은 누가 인위적으로 나눈 것이 아닌 것이다. 혹자는 이렇게 5대 구분되는 것은 마태가 5라는 숫자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Koze, 1977 : 2) 즉 마태복음 전체가 모세 5경적 구조 (Pentateuchal Structure)를 가지어, 5대 강화(discourse)를 내포하고 있다는 학설(참조: 황창기(1986 : 80-94)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증명해 낼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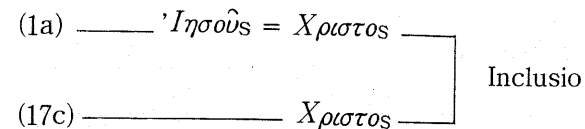
3.2. *γενεσις* 사상이 전 문단을 흐르고 있고, 그 다음 문단에서도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즉 *γενεσις*(1a)로 시작하여 17a, b, c의 *γενεαι*로 끝나며 그 사이에 동사, *ἐγεννησεν*을 2a-16b까지 13번 모두 40번을 포함하는 Inklusio(황창기 1986 : 86-87)를 형성하고 있다.



위에서 *γενεαι*의 복수인 *γενεαι*가 17, a, b, c에 쓰인 것은 문단 전체를 총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자연히 중요시 되는 것은 *γενναω*라는 동사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을 단순히 '남성적 생산기능을 강조하는 용어'(김근수 1988 : 136)로만 볼 수 없다. 사실 이 말이 성경의 족보에 쓰였을 때는 단순히 부모-자식 간의 승계보다는 법적 승계 (Legal succession)를 내포하기 때문이다(Bruce 1982 : 411). 더 나아가서 *βιβλος γενεσεως*(1a)의 뜻도 *γενναω*와 연관이 있다. 다시 말해서 *βιβλος γενεσεως*가 단순히 예수님의 족보를 가리키는가? 아니면 마태복음의 서문(Prologue)인 예수님의 탄생기사의 서문인가? 그렇지 않으면 마태복음 전체의 서문인가? (Fenton 1963 : 36) 그리고 그 각각의 경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성경신학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단 구조적 특징을 살피고 그 특징의 의미에 대해서는 구조적 특징 다음에 바로 다룰 것이다.

3.3. 'Ιησοῦ Χριστοῦ(1a)가 16b에서는 'Ιησοῦς ὁ λεγομενος Χριστος로 쓰였고 17c에서는 του Χριστοῦ로 바로 쓰이었다. 이 이름이 전체 문단을 포함하고 있고 17c에서 Χριστου로 쓰인 것은 'Ιησοῦς=Χριστος라는 것을 전체 구조로 증명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다.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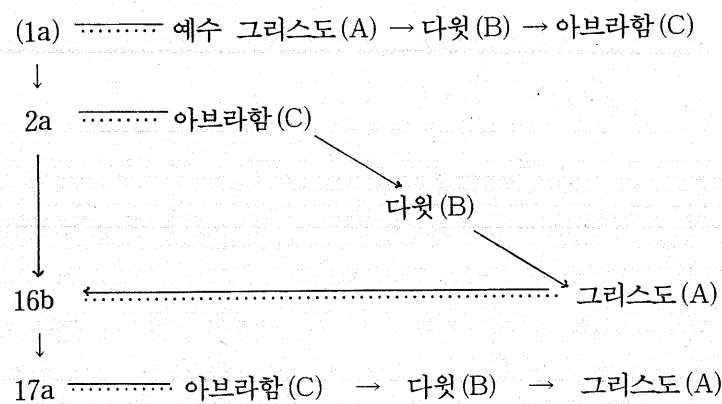


우리는 위의 구조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다(행5 : 42 : 9 : 22) 라는 구체적 표현이 '토씨'와 '이다'를 생략하고 예수=그리스도임을 처음부터 선언하고 있는 기독교 변증학적 동기를 마태복음 첫장 첫 절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여기까지는 구약의 메시아 예언과 예수님의 가르치심, 전파하심, 병고치심, 귀신을 쫓아 내심, 각종 표적행하심, 십자가의 죽임과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등의 사역과 그 제자들의 사역에서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은 후에 나아가서 많은 피를 흘린후에야 사람들이 이 사실 즉 "예수님=그리스도"라는 진리를 터득하게 된 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이 예수님 생전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승천하신 후 30~40년 후에 기록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받아 들이는 유대인은 극 소수이며 적대시 당하는 상황에서도 마태복음의 저자는 세상 사람들이 믿든지 말든지 처음부터 담대히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 당시는 물론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도 ("예수님=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생명을 얻는 필수 요건(요20 : 31)이면서도) 사람들이 잘 받아 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선언적 표현을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본질이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그 증거를 변호하려고 한 곳은 거의 없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전제로 하고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것을 과감하게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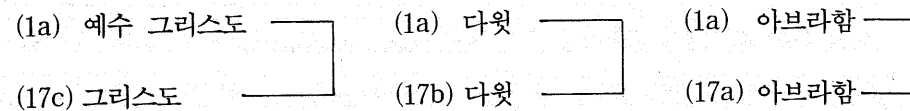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심을 강력히 증거하고 있되, 구조적으로 선포하고 있음을 수증해야 한다. 17c에서 '그리스도'란 표현은 곧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것이 바울서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란 표현보다 '그리스도 예수'(롬 3:24)라고 함으로,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심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던 사실(행16:31, 18:28)이 서신서에서 기정 사실화 한것을 찾아 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우리가 아무 거리낌없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까지는 계시 역사상 주님과 수많은 사람들의 피의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이지만, 우리 본문의 구조도 그 계시역사를 단적으로 요약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3.4. 본 문단의 제목(1a)에서 이름의 배열은 예수 그리스도(A) - 다윗(B) - 그리스도(A)이다(한글 성경에는 역순임) 그리고 2a~16b까지는 그 이름들이 역사적 순서를 따라 배열되었다. 즉, 아브라함(C) - 다윗(B) - 그리스도(A)로 배열되었다. 또 결론인 17a, b, c에서도 아브라함(C) - 다윗(B) - 그리스도(A)로 다시 배열하여 강조하고 있다. 이것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이상의 세 이름은 각각 inclusio를 형성하여 온 문단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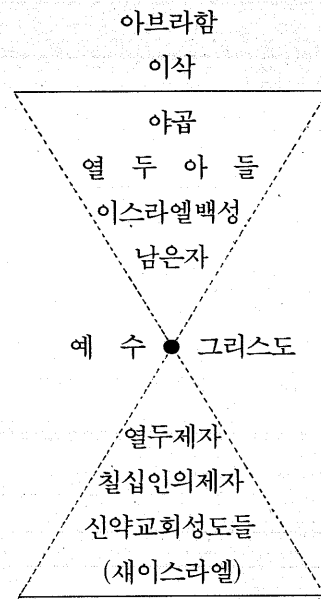
본 문단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그리스도(예수)로 마치고 있다. 우리는 강한 기독교적 색채를 본 문단 구조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다윗과 아브라함의 중요성도 두드러지게 나타남으로 그리스도와 이들의 관계도 역사적 맥락에서 해석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그 모든 의미에 대해서는 역시 이 구조적 특징을 살핀 후로 미룬다.

3.5. 왕국이전시대의 예수님의 족보

(2a-6a)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다윗까지 이어진다. 다윗은 특히 '왕'으로 묘사되고 있다(6a) 그의 왕권은 이제 왕국시대(6b-11a)로 이어진다. 이 시대는 다윗으로 시작하여 '바벨론 이거'로 끝을 맺는다.

이는 다윗을 왕으로 표시한 것(6a)이 이스라엘 역사의 발흥 및 융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바벨론 이거'(11a, 12a)는 이스라엘 역사의 쇠퇴 및 암울한 시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 '바벨론 이거'는 결론에서도 두 번(17b, 17c)나와서, 이스라엘 역사의 치욕기를 강조하고 있다 즉 왕국시대 이전은 다윗 왕(6a)을 향하는 오르막이라고 하면 왕국시대의 기간은 '바벨론 이거'라는 밀바닥을 향하는 내리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Koze 1977:3-4) 우리는 2a-16b까지의 3구분에서 첫 분기점이 '다윗 왕'(6a, 6b)인 점에 반하여 둘째 분기점이 '바벨론 이거'(11a, 12a)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6. *Και τους αδελφους αυτου*가 2c와 11a에 첨가된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전자는 유다와 야곱의 12 형제를 말하며 후자 즉 여고냐와 그 형제는 역대상 3:16에 단 한명의 여고냐 형제만을 가리키기보다(Gundry 1982:16) 넓은 의미에서 그 친척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 즉 요시야의 아들들 즉 여호야김의 형제들을 말하는데 여호야하스(대하 36:2) 시드기야(대하 36:10, 11, 참고, 왕하 24:17) 등을 가리킨다. (Hendriksen 1973:124) 사실 성경에서 아버지, 형제등은 좀 광범하게 쓰이는게 사실이다. 다윗은 히스기야의 아버지로 불리었다(왕하 18:3, 참조 마 3:9, 눅 1:73, 16:24, 요 8:39, 53, 56등), 또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지만(창 11:27) 아브라함이 그를 형제라 불렀다(창 14:14, 16) 어쨌든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집단적 의미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여고냐와 그 형제(11a)는 그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와 종'이라는 단일 의미로 축소되는 점은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도 개인적 자격보다 '내 아들'(마 2:15)로서 즉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집단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점이다 문제는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Και τους αδελφους αυτου*(2c와 11a)의 표현이 과연 그것을 의도한 것인지는 증명할 도리가 없다. 다만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본구조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3.7. 구조적으로 본다면 세라(3a)가 첨부된 것은 기본 구조(X *ἐγεννησεν* Y)와는 다른 것이 확연하다. 그러나 창 38:28-30로 돌아가보면 베레스가 맏아들이 된 것은 인간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이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같은 이적적 요소를 미리 예견하도록 예수님의 족보에다 특이한 사실을 먼저 보여준 것인지도 모른다(Koze 1977:3) 성경에 쓰인 단어 하나도 예사로 쓰인것은 없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그 말의 타당성을 인정할수도 있겠다.

또 베레스와 세라는 유다의 사생자들이었다(창38). 사생자는 10代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포함될 수 없었다(신23:2). 베레스에서 다윗까지가 10代임을 보여주고 있는데(룻4:18-22), 이들 중에서 아무도 사사로 활약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와 있다. 이는 족보자체가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선언하고 있는 증거이다.

3.8. 본 문단의 기본 형식에다 여자의 이름을 덧붙이되 거의 같은 형식을 취하는 것이 특이하다.

- 3a *ἐκ τῆς θαμαρ*
- 5a *ἐκ τῆς Ραχάβ*
- 5b *ἐκ τῆς Ρουθ*
- 6b *ἐκ τῆς τοῦ Ὀυρίου*

여자의 이름이 *βιβλος γενεσεως*에 포함에 포함된다는 것이 특이하다. 이로써 예수님의 족보는 단순한 가계보가 아님을 암시하고 있다 구약의 족보에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가 언급

되기는 한다(대상 1:34:2:1-15, 참조 룻 4:18-22) 그러나 이들이 모두 이방인이라는데 족보의 특이성을 더해 준다. 다말은 아마 가나안인으로 시아버지 유다와 창녀 노릇을 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창 38:11,13-14). 라합도 기생으로 가나안 여인이다. 룻은 모압 인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헷족속이다. 하나님의 교회로 이방인도 포함하는 복음의 은혜를 보여 준다고 하겠다.

3.9. 우리 본문은 요셉과 예수님과 관계를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다(16a, b) 즉 요셉이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족보에서 요셉까지는 기본 형식(X *ἐγεννησεν* Y)을 취하여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달리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다 *Ἰωσήφ τοῦ ἀνδρα Μαρίας, ἐξ ἧς ἐγεννηθη Ἰησοῦς*로 표현했다. 이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 ① 요셉이 예수님의 법적 부친임을 보여 주며
- ② 요셉이 예수님의 혈통상 부친일 수 없음을 말하며
- ③ 동사가 신적 수동태로 쓰임으로 하나님께서 문장의 주어가 됨을 전제하여
- ④ 읽는 자들로 하여금 다음 문단의 내용을 예측하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점이다(Koze:1977:4) 과연 다음 문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 탄생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관련성을 유지하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백히 못박는다(16b) 이로써 왕조시대 이후가 그리스도로 그 절정을 이루며, 또 전체 족보가 '그리스도'로 종막을 고한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고구조 분석표에서 확실히 보여 준다.

3.10. 마지막 결론 부분은 전체 문단을 다시 요약하되 독특하게 전개했다.

- ①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윗왕'과 '바벨론 이기'를 중대한 두 분기점으로 삼아
- ② 그 역사를 3등분 하였으며
- ③ 그 마지막은 그리스도로 이어지며
- ④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의 3등분된 이스라엘 역사는 각각 14代씩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렇게 함으로 본 문단의 구조에서 14代란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 결국 3이란 숫자가 은연중에 부각된 반면에, 14란 숫자는 명백하게 표현된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일하시는 것이 곧 이 3이란 숫자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그리고 14(代)라는 숫자에 대하여도 다음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 ① 다윗은 두 번이나 계산되었다(6a, 6b)
- ② 족보에 생략된 부분이 많다.
  - ㉠ 라합(5a)과 다윗(6a) 사이의 대수가 (왕상 6:1의 기간에 비추어 보아) 상당히 생략되었다.
  - ㉡ 요람과 웃시야 사이(8c)에 아하사야(왕하 8:25, 대하 22:1) 요아스(왕하 11:21; 대하 24:1) 아마샤(왕하 14:1; 대하 25:1)가 생략되었다.
  - ㉢ 요시아와 여고야(여호야김) 사이에 (11a) 여호야김이 생략되었다(대상 3:15,16). 그러므로 *γενναω*의 동사가 법적 승계를 나타냄을 다시 확인한 셈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14代 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신학적 의미는 역시 이 구조적 특징에서는 다루지 않고 뒤로 미룬다.)

### 4. 결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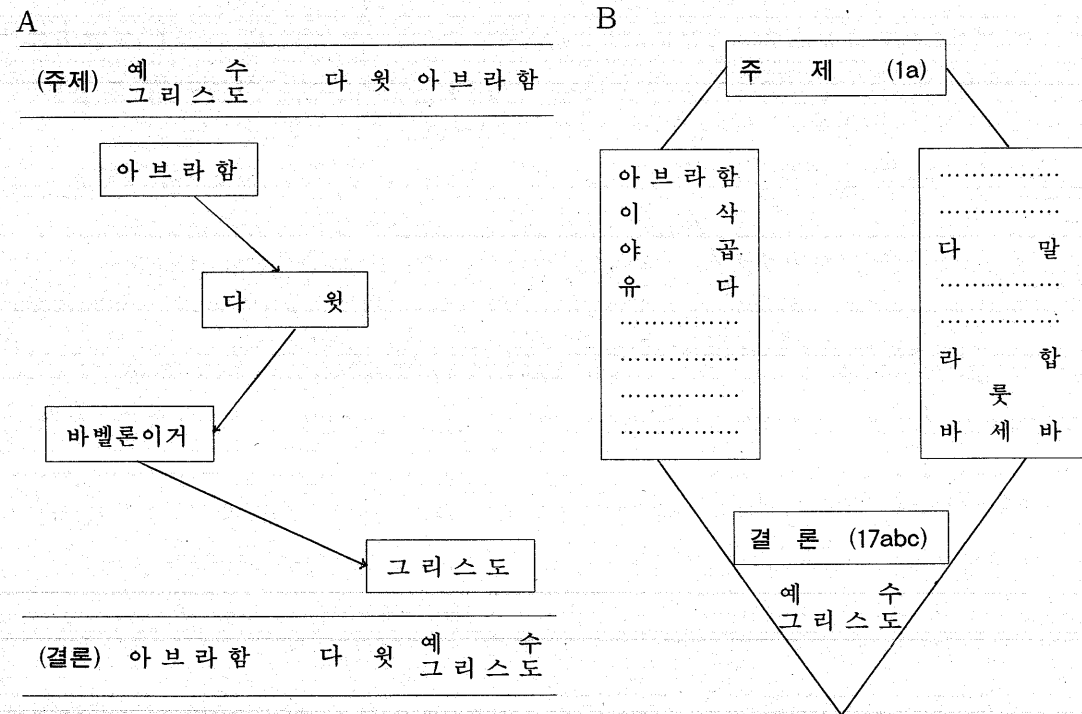
첫째, 문단 전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 구조를 통해서 (특히 inclusio를 통하여) 밝히어 그리스도(새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왔음을 보여준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마치는 inclusio에 포함된 동사 γενναω는 육신적 승계뿐만아니라 법적승계를 나타낸다(많은 부분의 생략 포함) 따라서 이 족보는 예수님의 연대기 (Chronological report)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기독교적 증거 (Christological testimony)이다 (Hendriksen 1973 :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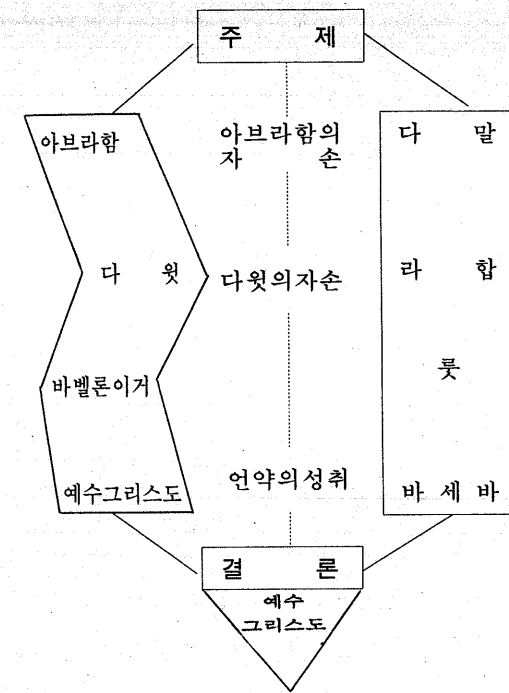
셋째,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흥망성쇠를 통하여 오시었다.

넷째, 그리고 이방인이요 여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포함된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메시아가 오신 후에 실현됨을 보여 주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다음 도표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앞의 두 도표를 아래와 같이 하나로 묶을 수도 있다 (Koze 1977 : 5-6)



### 참고서적

1. 황 창 기 1984 “최근 성경해석학의 동향” 이근삼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고신대 출판부

1986 “마태복음의 구조적 특징” 고려신학보 제12집,  
고려신학대학원 편집실

1987 “마 7:13-27의 구조적 특징” 성경과신학 제5권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

2. 김 근 수 1988 “마태복음 1장연구” 성경연구와 신학 총신대 출판부

3. BRUCE F. F 1982 “Geneology of Jesus Christ” in (J. D Douglas et  
al eds) New Bible Dictionary 2nd edition Tyndale  
House Publishers INC.

4. DAVIES W. D 1964 The Setting of the Sermon on the Mou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5. FENTON J. C 1963 Saint Matthew Penguin Books

6. FRANCE R. T 1985 Matthew: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y  
Inter-Varsity Press.

7. GREEN H. B 1975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Oxford  
University Press.

8. GUNDRY R. H 1982 Matthew William B Erdmans Publishing  
Company.

9. HENDRIKSEN W. 1973 New Testament Commentary: Exposition of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Baker Book  
House.

10. KOZE, P. P. A 1977 “The Structure of Matthew One” in The Structure  
of Matthew 1-13 Neotestamentica 11 (1977)

11. MACHEN J. G. 1930 The Virgin Birth of Christ Baker Book House

12. RIDDERBOS, H. N. 1987 Matthew (Translated from Dutch into English  
by R. Togtman) Regency Reference Library  
Zondervan Publishing House.

## 다니엘 9장의 ‘70 이레’에 대한 재해석

한 정 건\*

### I. 서 론

최근 교계에서 종말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일고있는 종말론에는 두개의 큰 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세대주의적인 주장이고, 또 하나는 계약신학자들이 보는 견해이다. 세대주의자들은 종말론에 관한 성경본문들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불러는 경향이 있는 반면, 계약신학자들은 영적인 사건으로 불러는 경향이 있다. 또 세대주의자들은 종말론 적인 교훈들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반면에, 계약신학자들은 이미 이루어진 종말을 중요시 하여 예수님의 초림에 강조점을 돌려고 한다. 세대주의자들은 성경 본문들을 역사적으로 불러는 의도가 너무 심하여 성경의 예언들을 지나치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에 연관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즉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나는 신상의 계시에서, 돌이 발가락 부분을 찢다는 본문을 역사에 적용시켜, 발가락은 열이니까 마지막에 일어나는 적그리스도는 열개의 국가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것은 E. C.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단정을 짓는다. 반면에 계약신학자들은 역사적인 해석이 아닌 영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마지막에 징조로써 주어지는 ‘전쟁’ ‘기근’ 등의 사건들과 또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사건들을 마치 실재 일어날 사건이 아닌 양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양대견해를 볼 때에 각자가 가진 장점도 있는 것 같고, 또 각자가 가진 단점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신학적인 선입관을 먼저 가지고 성경 본문들을 해석하는 것 보다, 순수한 눈으로 성경을 먼저 해석 한 후에 종말론에 대한 우리들의 견해를 다시 설정해야 할 것이다.

다니엘서 9장은 종말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종말론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의 성격이 규정되어 진다. 즉 종말론의 초점이 재림으로 모아지는 지, 아니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모아지는 지; 그리고 예언들을 역사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의미를 찾는 데 중점을 둘 것이지가 판가를 날 것이다. 그러나 역

\* 신학과 조교수, 구약학 전공